

시즌1 : 메타파일럿 가이드

부제 : 기계치 일러스트레이터의 VR 비행 도전기



[CAST : 등장인물 소개]



카야 (Kaya)

- **직업:**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주로 동화 삽화 및 인물화 작업)
- **성격:**
 - 어릴 적 꿈은 스텐디스였으나 현실에 치여 잊고 살았던 감성파.
 - 기계치에 컴맹. “이 버튼은 뭐예요?”보다 “저 구름을 뚫고 지나가도 되나요?”라고 묻는 스타일.
 - 요령은 부족하지만 끈기는 있어, 온몸으로 부딪히며 조종을 배운다.

역할: 독자의 페르소나.

- 설치 오류, VR 멀미, 착륙 실패 등 초보 독자가 겪을 모든 시행착오를 대신 겪으며 해결해 나가는 성장형 주인공.

특징: 슬럼프에 빠져 새로운 영감을 찾던 중, 서점에서 우연히 <메타파일럿>을 읽고 충동적으로 장비를 지른다. “딱 한 번만이라도, 내 손으로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



티타 (Tita)

- **직업:** ‘타이탄(TITAN)’ PC방 사장 겸 하드웨어 엔지니어.
- **성격:**
 - 눈 감고도 기계 장비를 분해·조립하는 전문가.
 - “그 그래픽카드로는 어림도 없어요”라며 **팩트 폭격**을 날리는 직설화법의 소유자.
 - 하지만 뒤에서는 PC 성능을 최적화해 주고 조종 장비를 직접 만들어주는 든든한 촌데레 지원군.

역할: 1권 가이드 편의 해결사.

특징: 무심한 듯 시크하지만, 알고 보면 비행 시뮬레이션에 진심인 반전 매력의 소유자.



레이 (Ray)

- **직업:** 항공 운항과 휴학생 (항공사 입사 준비 중).
- **성격:**
 - **무한 칭찬 로봇.** 카야가 시동만 걸어도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며 기를 살려준다.
 - 복잡한 공기역학을 “손바닥으로 바람을 느끼는 것”이라며 감각적인 비유로 설명하는 비행 1타 강사.

역할: 2권 튜터 편의 메인 캐릭터. 가상 비행 시뮬레이션 동호회 튜터.

특징: 평소엔 순둥하지만 항공기 역사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이며 말이 빨라진다. 원칙주의자 ‘씨겔’ 교관을 만나기 전, 카야가 포기하지 않도록 멘탈을 케어하는 것이 목표.



씨겔 (SeaGAL)

- **직업:** 전생 파일럿 (추정). 현 메타파일럿 아카데미 수석 교관.
- **성격:**
 - **FM(정석)의 화신.** “비행은 감각이 아니라 과학이다. 가상이라고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가 입버릇.
 - 칭찬에 인색하고 실수에는 가차 없지만, 실력만큼은 진짜배기.

역할: 3권 비행 교관 편의 메인 빌런이자 멘토.

특징: 잘생겼으나 낭만이 없다.

[프롤로그] 잿빛 캔버스 위로 흰 파란 물감

1. 무채색의 방

나는 동화를 그린다. 하지만 내 현실은 동화가 아니다.

[작가님, 이번 주인공 표정이 너무 우울해 보여요. 채도 좀 높여주세요. 아, 그리고 마감, 내일 오전인 거 아시죠?]

작업을 의뢰한 클라이언트의 메일은 건조했다. 타블렛 펜을 쥔 손목이 시큰거렸

다. 모니터 속의 세상은 알록달록한 파스텔톤 꽃밭인데, 6평짜리 내 자취방은 온통 무채색이었다. 빨래 건조대에 널린 회색 양말, 며칠째 쌓여있는 편의점 도시락 용기, 그리고 꺼버린 모니터 화면에 비친 푸석한 내 얼굴.

더 이상 그럴 수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어떤 색을 써야 할지 잊어버린 기분이었다. 나는 도망치듯 슬리퍼를 끌고 밖을 나와 찬바람을 가슴 깊이 마셨다. 그리고는 무작정 서점으로 들어갔다.

2. 도망친 곳에서 만난 파랑 (The Blue)

종이 냄새. 활자가 담긴 책을 보면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 베스트셀러 코너의 ‘힐링 에세이’들은 뻔한 위로만 건넸고, 자기계발서들은 더 열심히 살라며 당근 없는 채찍질만 해댔다. 갈 곳을 잃은 시선이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기술/취미’ 코너로 흘러갔다.

복잡한 회로도, 딱딱한 코딩 용어들이 적힌 책 사이에서, 유독 이질적인 책이 눈에 들어왔다.

<메타과일렛>

제목보다 먼저 시선을 뺏은 건 표지의 그림이었다. 기계 장치에 0과 1로 도배한 그런 표지가 아니었다. 조종석 우측 창문 너머로 보이는 비행기 한 대가 가슴 시리도록 푸른 수평선 위를 날고 있었다.

3. 구조 신호 (Mayday)

순간,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뇌리에 스쳤다. 열 살 무렵, 가족 여행 때 탔던 비행기. 모두가 잠든 사이 손거울 같은 창을 통해 보았던 그 풍경. 땅 위에 어지럽게 엮힌 도로나 건물은 한 점이 되었다가 사라지고, 오직 하늘과 나만 존재하던 그 고요한 세상. 스텔러스가 되어 매일 저 풍경을 보겠다던 꿈은 입시와 취업이라는 난기류를 만나 산산조각 났었다.

홀린 듯 책을 집어 들었다. 책장을 넘기자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당신의 방을 비행기로 만들어 세계를 여행하세요.”

순간, 눈이 번쩍 떠졌다. “내 방을 비행기로 만들어 세계를 여행할 수 있다고?”

“그래, 이거라면... 다시 그럴 수 있을까? 저 구름 너머의 색깔을...”

지금 당장 구름 너머의 세상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내 인생은 영영 회색빛으로 남을 것 같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이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내 무의식이 보낸 **Mayday(구조 신호)**에 대한 응답처럼 느껴졌다.

4. 날개를 달다 (飛翔)

“내 비행기로 세계 여행을? 재밌겠다... 훗.”

그렇게, 나의 무모하고도 엉뚱한 VR 비행이 시작되었다.

[Chapter 1] 거대한 검은 덩어리

1. 택배는 설렘을 싣고 (Unboxing)

“와... 이거 가격 실화야?”

인터넷 쇼핑몰 장바구니에 담긴 조종 장비의 합계 금액을 보고 나는 뒷목을 잡았다. 좀 쓸만하다 싶은 건 내 한 달 생활비를 훌쩍 넘었고, 싼 건 장난감처럼 조잡해 보였다. 그렇게 큰맘 먹고 질렀던 물건이 상자에 쌓여 현관문 앞에 있었다.

택배 박스는 생각보다 거대했다. 나는 마른침을 삼켰다. 빨리 날고 싶은 마음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광고하는 비싼 조종간을 주문했다. 내가 비행 장비를 시킨 게 맞나? 비행기 날개라도 배달된 건 아니겠지?

“자, 이제 날아볼까?”

설렘을 가득 안고 상자를 동봉한 테이프를 커터 칼로 잘랐다. 하지만 상자가 열리는 순간, 내 기대감은 순식간에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상자 안에는 투박한 검은색 플라스틱 덩어리가 들어 있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나는 **조종간(Stick)**, 다른 하나는 ****스로틀(Throttle)****이라고 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저 ****‘따리를 튼 뱀처럼 솟은 물건’**과 헬스장에 있는 ****‘운동 기구’**로 보일 뿐이었다.

2. 외계어 매뉴얼 (Alien Language)

“으... 너무 무겁다.”

매끈한 곡선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지고 알 수 없는 빨간 버튼과 스위치가 여기저기 흥측하게 달려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동봉된 설명서를 펼쳤다.

[System Requirement: DirectX 11, USB port required...]

“다... **다이렉트(Direct)**? USB는 또 뭐야? 구멍이 다 똑같이 생긴 거 아니었어?”

손바닥만한 설명서에 적힌 외계어에 현기증이 났다. 나는 설명서를 덮고 내 노트북 옆구리에 뚫린 구멍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틀린 그림 찾기’를 시작했다. 대충 맞다 싶은 구멍에 선을 쭉서 넣었다.

3. 이륙 실패 (Crash)

다시 유튜브에서 설치 영상을 찾아 킁킁대며 책상 위에 조종간을 올리고, 왼쪽에는 스토틀을 놓았다.

“좋아. 날아볼까!”

휘이이이윙-

노트북 팬이 이륙하는 제트기처럼 굉음을 내기 시작했다. 화면 속의 비행기는 똑, 똑 끊기더니 급기야 멈춰버렸다.

“아, 안 돼! 내 작업 파일!!”

비행은커녕, 밥줄인 일러스트 작업용 노트북이 폭발할 것 같았다. 식은땀이 흘렀다. 비행 시작 전에 비명을 지르는 팬 소리를 듣고 황급히 컴퓨터를 껐다.

4. 구조 요청 (SOS)

나는 멍하니 검은 화면에 비친 내 당황한 얼굴을 바라보다가, 불현듯 동네 어귀에

있는 간판 하나를 떠올렸다.

<타이탄(TITAN) PC방>

혼자 설치하는 건 무리였다. 나는 주섬주섬 비싼 장비들을 쇼핑백에 집어넣고 집을 뛰쳐나왔다.

[Chapter 2] 타이탄 PC방 사장님

1. 라면 냄새와 드라이버

PC방 문을 열자 라면 냄새와 화려한 LED 광선이 눈을 찔렀다. 카운터 안쪽에는 숯컷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자가 드라이버를 입에 문 채 컴퓨터 본체를 뜯고 있었다.

“저기... 사장님?”

그녀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라면 주문은 키오스크 이용하세요. 자리 없으면 대기하셔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나는 쭈뼛거리며 쇼핑백에서 조종 장비를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덜그럭.

둔탁한 소리가 나자 PC방 주인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녀의 시선이 내 얼굴과 조종 장비, 그리고 내 품에 안고 있는 노트북을 빠르게 오갔다. 드라이버를 내려놓은 그녀가 팔짱을 끼며 물었다.

“호호? 멋진 조종간이네요? 비행기 게임을 하려고요?”

“아, 네! 이걸... 제 노트북에 연결하니까 화면이 꺼져서...”

노트북 수리를 맡겼을 때 가끔, 타이탄 PC방을 이용했던 나는 도움을 바라는 심정으로 노트북을 내밀었다.

2. 예쁜 쓰레기 (Pretty Trash)

하지만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보지도 않은 채, 물끄러미 내 노트북을 보고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손님. 지금 이 예쁜 쓰레기로 비행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예쁜... 쓰레기요?”

“이건 노트북이잖아요. 고사양 노트북이긴 하지만 내장 그래픽 카드로 비행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니 어렵도 없어요.”

“그, 그럼 어떡해요? 큰맘 먹고 유튜브 가입해서 비행 교육을 신청했는데...”

울상이 된 나를 보며 티타가 한숨을 푹 쉬었다. 그녀는 카운터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 앞에 툭 던졌다. 컴퓨터 부품 카탈로그였다.

3. 활주로 공사부터 (System Requirements)

“일단 앉아요. 비행기 띄우기 전에 **활주로 공사**부터 먼저 해야겠네요. 노트북은 안 되고 게이밍 컴퓨터가 있어야 해요.”

그녀의 눈빛이 푸른 LED 광선에 비쳐 또 한번 번뜩였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 아니, 다짜고짜 조종 장비를 쇼핑백에 들고 온 엉뚱한 예술가를 보는 엔지니어의 애정 섞인 눈빛이었을지 모른다.

“컴퓨터를 새로 사야 하나요?”

나는 불가능하다는 질문을 그녀에게 던졌다. 그녀가 대답했다.

“아니요. **옵션을 타협**하면 새 컴퓨터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Chapter 3] 나만의 조종간. 아니면 빌리세요

1. 피아노를 마우스로 칠 셈인가

PC방 사장님, 티타 님은 내 노트북에 설치된 비행 시뮬레이터의 그래픽 옵션을 능숙하게 조절해 주었다. “이 정도 설정이면 모니터 비행 훈련은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거예요.”라는 말에 안도감이 들었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앞섰다.

나는 문득 조심스럽게 물었다.

“티타 님... 이거 장비 반납하고 그냥 키보드로 날면 안 될까요? 화살표 키로도 비행기는 움직이잖아요.”

나는 충동구매한 것 같은 고가의 조종 장비 가격을 떠올리며 PC방 카운터에 앉으려 징징거렸다.

“헐... 손님, 게임도 아니고 시뮬레이션 비행을 키보드로 하겠다는 건, **피아노를 마우스 클릭으로 치겠다는 거랑 같아요.**”

티타 님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대꾸했다.

“게다가 VR 비행도 할 거라면서요? 눈앞이 캄캄한데 보이지 않는 키보드 자판 찾다가 1분 만에 추락할걸요?”

“그치만 너무 비싸잖아요! 취미 생활 하려다 파산하게 생겼다고요.”

2. 메타파일럿 스페셜 에디션

나의 절규에 티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카운터 아래에서 투박한 갈색 종이 상자를 끄 하고 끄집어 올렸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자, **메타파일럿 스페셜 에디션.**”

상자에서 나온 물건은 시중에서 보던 매끈한 플라스틱 제품과는 달랐다. 표면에는 가로줄 무늬(3D 프린팅 적층 흔적)가 은은하게 보였고, 색상은 검은색과 짙은 회색이 섞여 있었다. 뭔가 공장에서 찍어낸 게 아니라, 공방에서 깎아 만든 듯한 느낌.

“이게 뭐예요? 어디 브랜드 건데요?”

“브랜드는 무슨. 내가 직접 만든 거예요. **3D 프린터로.**”

“네? 3D 프린터요? 그림 플라스틱 장난감 아니에요?”

3. 손가락이 기억하는 그립감

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조종간(Stick)을 쥐어보았다. 그런데... 어라?

찰-

손에 감기는 그립감이 놀라울 정도로 묵직하고 단단했다. 엄지손가락이 닿는 곳에 버튼이, 검지가 닿는 곳에 트리거가 정확하게 위치해 있었다. 내 손의 크기와 손가락 길이를 고려해 맞춘 것처럼 편안했다.

“어? 생각보다 느낌이... 진짜 **쫄득한데요?**”

“그렇죠? 시중 제품들은 고가의 실제 비행기 조종간이거나 아니면 게임용으로 버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건 **초보자의 비행 훈련**에 꼭 맞게 만들었어요. VR 쓰고 눈 감고도 손가락 감각만으로 모든 버튼을 찾을 수 있게.”

4. 공대생의 미학 (The Engineer's Aesthetic)

티타는 발판 두 개가 달린 묵직한 ****러더 페달(Rudder Pedal)****도 꺼내 보여주었다.

철물점에서나 봤던 튼튼한 알루미늄 프로파일과 스프링, 볼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내 눈엔 ‘미적 감각을 잃은 공대생이 만든 기계 장치’로 보였지만, 묘하게 ‘훈련에 꼭 맞는 튼튼한 장비’라는 신뢰감이 들었다.

“이건 발로 차는 방향타예요. 세스나 같은 기초 과정에서는 필수 장비는 아니지만, 나중에 바람 부는 날 착륙하려면 꼭 필요하죠. 일단 조종간부터 써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투박하지만 믿음직한 이 장비들이 나를 하늘로 데려다줄 날개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Chapter 4] 비밀의 문 뒤에는 괴물이 산다

1. 관계자 외 출입 금지 (Staff Only)

PC방 사장님이 직접 제작한 조종간과 반쯤할 쇼핑백을 들고 나가려는데, 티타 님이 나를 불러세웠다.

“잠깐만요. 무거운 거 들고 왔다 가기 전에, 진짜를 한번 보고 가시죠.”

“진짜요?”

티타 님은 카운터 뒤쪽에 있는 철문으로 향했다. 낡은 문에는 ****STAFF ONLY /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붉은색 팻말이 붙어 있었다. 나는 라면 재고 창고나 장비실이겠거니 생각하며 그녀를 따라갔다.

티타 님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자, **철커덕**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어서 와요. 나의 ****성역(Sanctuary)****에.”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는 서늘한 공기 속에서 독특한 기계 냄새가 났다. 금속과 기

름, 그리고 전자 회로의 냄새.

2. 방구석 격납고 (Home Cockpit)

티타 님이 벽면의 스위치를 올렸다.

탁, 탁-

천장의 레일 조명이 순차적으로 켜지자,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곳은 창고가 아니었다. 작은 격납고였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 거대한 ****‘괴물’****이 웅크리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로봇이에요?”

그것은 단순한 컴퓨터 책상이 아니었다. 둔탁한 무광 회색으로 도색된 금속 프레임, 복잡한 계기판과 스위치들, 그리고 그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네 개의 굵은 유압 실린더와 모터들.

오래전 영화에서 보았던 비행기 조종석이었다. 그녀는 ****F-16** 파이팅 팰콘 (Fighting Falcon)******의 콕핏(조종석)이라고 했다.

“제 보물 1호예요. 실제 F-16 조종석 규격이랑 1:1로 똑같이 만든 ****홈 콕핏 (Home Cockpit)****이죠. 바닥에 모터 달린 거 보이죠? 비행 움직임에 맞춰서 시트도 같이 움직여요.”

3. 바이퍼에 오르다 (Boarding)

“한번 타볼래요? 비행 조종 장비를 들고 온 희귀한 고객님의 위한 특별 서비스.”

티타의 제안에 나는 홀린 듯 발 받침대를 던고 조종석 위로 올라갔다.

“신발은 안 벗어도 돼요.”

조심스럽게 조종석 시트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생각보다 훨씬 좁았다. 양쪽 허벅지 옆으로 조종 장비가 나를 감쌌다. 정면에는 모니터와 VR 헤드셋이 놓여 있었고, 발밑에는 운동 기구 같은 묵직한 러더 페달이 솟아 있었다.

마치, 거대한 로봇의 심장 안까지 들어온 것처럼 조종석은 기묘한 안락함이 느껴졌다.

“자, 앞에 놓인 VR 헤드셋 쓰고 시동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놀라지 마요.”

티타가 외부에서 키보드를 두드렸다.

웅- 웅-

갑자기 의자 밑에서 모터가 구동되는 진동이 엉덩이를 타고 전해졌다. 눈앞의 계기판(MFD) 화면들이 초록색 빛을 뿜으며 켜졌다. 서라운드 스피커에서 쏟아지는 제트 엔진의 날카로운 구동음이 귓가를 때렸다.

4. 풀 애프터버너 (Full Afterburner)

“스로틀 밀어요! 풀 애프터버너(Afterburner)!” 그녀가 외쳤다.

나는 왼손으로 조종 레버를 끝까지 밀었다. 화면 속 활주로가 빠르게 뒤로 밀려났다.

콰아아아앙-!

화면 속 전투기 배기구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오는 소리와 동시에, 내 몸이 뒤로 확 젖혀졌다.

“으흠!”

실제로 비행기가 가속할 때 몸이 뒤로 밀리는 **G-force(중력가속도)**를 흉내 내기 위해, 시뮬레이터 전체가 뒤쪽으로 기울어진 것이다. 헤드셋의 화면과 결합한 내 뇌는 그것을 진짜 가속도로 착각했다.

“이제 조종간을 몸 앞으로 당겨요.”

기체가 하늘로 치솟았다. 시트가 덜컹거리며 상승의 진동을 만들어냈다. 몸이 조종간이 기울어지는 방향으로 쏠렸고, 구름을 뚫고 지나갈 때는 미세한 덜덜거림까지 느껴졌다.

“이런 게... 진짜 전투기구나.”

나는 눈 아래 펼쳐진 공향과 하늘을 번갈아 보며 중얼거렸다. 발밑의 진동, 손끝의 저항감, 좁은 각뿔의 냄새. 비행기를 한 번도 조종해 본 적 없는 내가, 지금이 순간 최초의 VR 전투기 파일럿이 됐다. 어쩌면 두 번째로.

5. 조종사의 세계로 가는 입장권 (The Ticket)

3분 같은 30분이 지났다. 비행 화면은 중간에 멈췄고 기체도 모터도 멈췄다.

“어때요? 할 만해요?”

티타가 씩 웃으며 헤드셋을 벗겨주었다. 잠시 공간감을 잃었는지 다리를 비틀거리며 각뿔에서 내려왔다. 심장이 가쁘게 뛰고 있었다. 방금 겪은 체험 비행의 여운이 너무 강해서, PC방 모니터 화면 속의 게임 풍경이 오히려 가짜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티타 님.”

“네?”

“저거... 얼마나 들었어요?”

내 질문에 티타가 폭소를 터뜨렸다.

“아이고, 벌써부터 눈이 너무 높아지셨네. 일단 경비행기부터 띄워보세요. 기초가 탄탄해야 나중에 전투기든 우주선이든 탈 거 아니에요?”

아까까지만 해도 비싸 보였던 쇼핑백 안의 조종간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건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다. 극소수만이 사는 조종사의 세계로 가는 **‘입장권’**이었다.

“알겠어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꽤 흥분되네요. 언젠가는...”

나는 뒤를 돌아, 어둠 속에 다시 잠든 괴물을 힐끗 돌아보았다. 이름이 **‘바이퍼(Viper)’**라고 했다. 왜 독사지?

철문이 닫혔다. 내 가슴속 엔진은 이제 막 예열을 시작했다.

[Chapter 5] 설치만 150기가? 인내심 테스트

1. 스팀이나 엑스박스나, 그것이 문제로다

타이탄 PC방의 비밀 다락방에서 전율을 맛보고 집에 온 나는 일러스트 작업물을 보며 다시 의욕이 넘쳤다. 당장이라도 창문을 열고 날아오를 기세였다.

하지만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 (Flight Simulator 2020)’**을 입력하자마자, 나는 또다시 선택장애에 빠졌다.

“스팀(Steam)은 뭐고 엑스박스(Xbox)는 또 뭐야?”

가격도 천차만별이었다. 어떤 건 6만 원대, 어떤 건 10만 원이 훌쩍 넘었다. 티타님의 조종 장비를 대여하지 못했다면 아마, 이 복잡한 관문에서 비행을 포기했을 지도 모른다. 나는 고민할 시간도 없이 티타님이 쇼핑백에 넣어준 ‘설치 가이드’ 쪽지를 펼쳤다.

2. 고인물의 꿀팁 (Game Pass)

쪽지에는 티타님의 글씨체만큼이나 시원시원한 솔루션이 적혀 있었다.

memo

스팀(Steam)? 엑스박스(Xbox)?

게임을 평생 소장하고 싶거나 평소 게임을 하던 ‘고인물’ 유저라면 스팀에서 구매하세요.

하지만 카야 님 같은 ‘초보 짝먹파’라면? ‘Xbox Game Pass’ 구독하세요.

이유가 뭘니까?

비행 중간에 포기할지 모르니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구독형으로 사면 좋아요. 넷플릭스 알죠? 그거랑 똑같아요. 생맥 한 잔 값(구독료)만 내면 게임 앱들을 모두 맛볼 수 있어요. 나중에 재미 붙으면 그때 사도 안 늦습니다.

“아하, 넷플릭스처럼 구독해서도 할 수 있구나!”

나는 무릎을 탁 쳤다. 안 그래도 장비 쇼핑하면서 놀랐는데, 10만 원짜리 어려운 게임을 덜컥 사는 건 부담스러웠다. 다행히 첫 달 구독료는 심지어 할인 행사 중이었다.

“좋았어. 일단 한 달만 ‘짝먹’ 해보는 거야. 혹시 수수료까지 한 번에 고고씽 씹가능?”

나는 주저 없이 Xbox 앱을 깔고 구독 버튼을 눌렀다. 합리적인 소비자가 된 기분에 콧노래가 나왔다.

3. 지구를 다운로드 중입니다 (150GB)

결제는 1초 만에 끝났다. 이제 설치만 하면 된다. 하지만 ‘설치’ 버튼을 누른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필요 용량: 152.4 GB / 예상 소요 시간: 8시간 30분

“배... 백오십 기가? 내 노트북 하드가 500기가인데?”

숫자 단위가 비현실적이었다. 요즘 게임이 무겁다는 건 들었지만, 이걸 게임이 아

나라 그냥 **지구(Earth)**를 통째로 다운로드받는 수준이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실제로 비행을 위한 전 세계의 지형 위성 데이터를 받는 게 맞았다.

진행 바(Progress bar)는 거북이보다 느렸다. 1%... 2%... 5... 노트북 팬이 휘잉 - 돌기 시작했다. 나는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오늘 비행은 끝났다.

4. 기다림도 훈련이다 (Loading...)

책상 위에는 티타 님이 잠시 써보라고 준, 3D 프린팅으로 만든 자작품 조종간이 놓여 있었다. 나는 다운로드가 되는 동안 조종간을 손에 쥐어보았다.

딸각, 딸각.

버튼을 눌러보고, 스위치를 올렸다 내리고, 스틱을 상하좌우로 돌리며 만져 보았다. 투박해 보였지만 손에 감기는 조종감이 꽤 마음에 들었다.

‘조종감이 내 맘에 쏙 드네. 근데 색깔이 좀 칙칙해. 내가 좋아하는 색은 핑크빛인데... 나중에 도색이라도 다시 할까?’

모니터 화면 속에 느리게 차오르는 다운로드 바가, 마치 비행기의 거대한 연료통을 채우는 과정처럼 느껴졌다.

‘그래, 기다리는 것도 훈련인가.’

150기가바이트. 저 엄청난 용량 속에 내가 날아다닐 하늘과, 구름과, 전 세계의 지형과 지물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묘하게 가슴이 뛰었다. 나는 조종간을 쥔 채 눈을 감았다.

저 게이지가 100%가 되는 순간. 나의 방은 더 이상 6평짜리 좁은 원룸이 아니다. 어디를 날아볼까?

[Chapter 6] 유튜브 선생님과 과외 쌤, 그리고 VR

1. 침묵하는 유튜브 선생님

“아니, 영상에선 그냥 ‘당기라’고만 했잖아!”

나는 유튜브 기초 강의를 열 번째 돌려보는 중이었다. 영상 속 교관은 너무나 평온하게 “활주로가 시야에 딱 차면 부드럽게 당기세요”라고 말하며 사뭇히 착륙했다.

하지만 내 비행기는 달랐다. 몇 번을 똑같이 따라 하며 조종간을 당겼는데 활주로에 처박히거나, 다시 튀어 올라 저 멀리 활주로 밖으로 날아가 버리기 일쑤였다.

“도대체 얼마나 당기라는 거야? ‘부드럽게’가 얼마큼인데?”

화면을 향해 따져 물었지만, 유튜브 선생님은 묵묵부답이었다. 댓글창을 뒤져봐도 “더 연습하세요”, “잘하면 됩니다”, “감각을 익히셔야 합니다”라는 막연한 답변뿐. 혼자 하는 독학(Self-study)의 한계가 명확했다.

2. 칭찬 요정, 레이 (Tutor Ray)

나는 결국 메타과일렛 아카데미의 ****[실시간 튜터 매칭]****을 클릭해서 그를 호출했다. 대기 중인 교관 목록에는 여러 프로필이 떠 있었다. 그중 ‘레이(Ray)’라는 튜터의 소개 글이 눈에 들어왔다.

[비행, 어렵지 않아요! 왕초보 전문, 칭찬으로 춤추게 해드립니다.]

“칭찬?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데.”

망설임 없이 **[과외 신청]**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디스코드 알림음과 함께 헤드셋 너머로 상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카야 님! 오늘부터 기초 비행을 도와드릴 튜터, ‘레이’입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선한 인상이 그려지는 남자였다. 하지만 나는 이미 의욕이 꺾인 상태였다.

“안녕하세요... 근데 저 이거 못 할 것 같아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떨미 날 것 같아요.”

3. 하늘이라는 캔버스 (Flight is Art)

“하하, 처음엔 다들 그래요. 저기, 카야 님 직업이 화가라고 하셨죠?”

“네, 일러스트레이터예요.”

“그럼 이 계기판을 ****‘팔레트’****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팔레트요?”

나는 의아해서 계기판을 다시 쳐다봤다.

“네. 비행도 그림을 그리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자, 여기 있는 ‘**자세계(Attitude Indicator)**’ 보이시죠? 파란색은 하늘, 갈색은 땅. 이게 카야 님의 캔버스예요. 비행기가 하늘이라는 파란 물감에 얼마나 가까이 닿아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의 설명을 듣고 자세계를 보니, 정말 동그란 캔버스 안에 하늘과 땅이 반반 섞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옆에 있는 ****‘속도계’****는 붓의 속도예요. 너무 느리면 물감이 뭉치고 너무 빠르면 튀어버리겠죠? 비행기도 적당한 속도가 있어요.”

“아...”

신기했다. 딱딱한 기계 장치들이 갑자기 내 손에 익은 도구들처럼 친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어때요? 이제 캔버스에 선을 한 번 그어볼까요? 조종간을 아주 부드럽게 당겨보세요. 붓질하듯이.”

나는 홀린 듯 천천히 조종간을 당겼다. 기체가 부드럽게 고개를 들었다. 자세계 속의 파란색 하늘이 캔버스를 가득 채웠다.

“좋아요! 아주 완벽한 곡선이었어요!”

레이의 환호성에 내 입가에도 슬며시 미소가 번졌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웬지 날 수 있을 것 같았다.

4. 히든 아이템 (VR Headset)

레이 튜터의 실시간 코칭을 받으니 훨씬 나왔다. “지금 속도 줄이세요!”, “조금 더 왼쪽!” 옆에서 누가 말해주니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순간, ‘착륙(Landing)’에서 막혔다.

“카야 님, 지금 진입 고도가 너무 높아요. 활주로가 안 가깝게 느껴지세요?”

“모르겠어요... 이게 땅에 닿은 건지 떠 있는 건지 감이 안 와요.”

“음...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카야 님, 지금이 바로 **‘그 아이템’**을 쓸 때입니다.”

“그 아이템이요?”

“착륙 감각 익히는 데는 VR만 한 게 없거든요. 지금 ‘착륙 훈련용 VR 대여(3~5일)’ 신청하세요. 딱 며칠만 빌려서 감 잡으면, 모니터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혹시, 필요하면 그래픽 카드도 같이 대여하세요.”

5. 모니터를 뚫고 나온 세상 (Immersion)

이틀 뒤, 메타파일럿 로고가 박힌 상자가 도착했다. 로고와 다르게 상자 속 내용물은 다른 회사에서 만든 VR 헤드셋이었다. 레이 튜터는 내 수업 시간에 맞춰 기기 세팅을 도와줬고 나는 헤드셋을 머리에 썼다.

“와...”

PC방에서 체험했던, 평면 모니터 속의 사각 화면이 사라지고, 내가 진짜 조종석에 앉아 있는 세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레이 튜터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깨끗하게 들려왔다.

“어때요? 공간감이 좀 느껴지세요?”

“네, 대박이에요! 날개 끝이 손에 닿을 것 같아요.”

“자, 그 상태로 활주로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아까랑 다를 거예요.”

나는 고개를 빼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모니터에서는 그저 납작한 회색 띠였던 활주로가, 지금은 저 까마득한 아래에 입체적으로 놓여 있었다.

“보여요... 내가 얼마나 높이 있는지, 활주로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그냥 느껴져요!”

“그렇죠? 인간은 두 개의 눈으로 거리를 알거든요. 모니터에서 느끼기 어렵죠. 자, 이제 그 거리감을 믿고 다시 한번 착륙해 봅시다.”

6. 장비빨의 승리 (Touchdown)

엔진 소리가 울리고, 나는 다시 활주로를 향해 기수를 내렸다. 이번엔 달랐다. 땅이 다가오는 속도가 온몸으로 느껴졌다.

‘아직 높아... 조금 더... 조금 더...’

계기를 보거나 머리로 계산할 필요가 없었다. 눈앞에 점점 다가오는 활주로 높이와 질감이 내 손을 이끌었다.

“지금이야!”

조종간을 부드럽게 당겼다. 비행기가 살짝 솟더니 이내, 끼익- 경쾌한 타이어 소

리와 함께 비행기가 활주로에 안착했다. 튕기지도, 처박히지도 않은 완벽한 착륙. “나이스! 카야 님, 방금 진짜 파일럿 같았어요! 봤죠? 때로는 장비빨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레이의 환호성에 나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다. 유튜브에서 해매던 내가, 튜터의 코칭과 VR이라는 무기를 만나 비로소 ‘착륙’이라는 첫 번째 벽을 넘은 것이다. “감사해요, 쌤! 저 이거 5일 동안 빌린 거죠? 경치도 구경하며 뽕을 뽑을 때까지 연습할게요!”

[1교시] 나의 첫 번째 날개 (Control Surfaces)

1. 막대기 하나로 춤추기

“자, 카야 님. 오늘은 시동 걸기 전에 몸부터 좀 풀어볼까요?”

레이 튜터가 말했다. VR 속의 나는 활주로에 멈춰 있는 하얀색 세스나 152 안에 앉아 있었다.

“몸을 풀다뇨? 체조라도 해요?”

“비슷해요. 비행기도 관절이 있거든요. 카야 님이 들고 있는 그 스틱(Joystick), 한번 왼쪽 끝까지 꺾어보세요.”

나는 조종간을 왼쪽으로 **휙** 꺾었다.

“그리고 왼쪽 날개 끝을 보세요.”

고개를 돌려보니 날개 뒷부분에 붙은 널빤지 같은 것이 위로 쑥 올라와 있었다.

“어? 날개 일부가 들렸네요?”

“그게 ‘에일러론(Aileron, 보조익)’이에요. 왼쪽이 올라가면 바람을 맞아서 왼쪽 날개가 내려갑니다. 그럼 비행기는 왼쪽으로 기울겠죠. 비행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롤(Roll)’이라고 해요. 자, 이번엔 오른쪽!”

오른쪽으로 꺾자 이번엔 오른쪽 날개의 에일러론이 올라왔다.

“오... 마치 비행기가 ‘안녕’하고 손 흔드는 것 같아요.”

“하하, 표현이 좋네요. 이번엔 스틱을 배 쪽으로 당겨보세요. 그리고 뒤를 돌아봐요.”

조종간을 살짝 당기고 뒤를 보니, 비행기 꼬리 날개 전체가 위로 솟구쳐 있었다.

“저건 ‘엘리베이터(Elevator, 승강타)’입니다. 저게 올라가면 꼬리를 누르는 힘이 생겨서, 반대로 비행기 머리는 하늘로 들리게 되죠. 이것을 ‘피치(Pitch)’라고 해요.”

나는 조종간을 당겼다 밀었다 하며 꼬리 날개가 끄덕거리는 모습을 구경했다.

“재밌네요! 마치 거대한 관절 인형을 조종하는 느낌이에요.”

2. 발로 차는 꼬리 (Rudder)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발밑에 있는 페달을 차보세요.”

나는 왼쪽 발을 꼭 밟았다. 그러자 꼬리 날개에 달린 수직 널빤지가 왼쪽으로 휘 돌아갔다.

“그건 ‘러더(Rudder, 방향타)’입니다. 배의 키랑 똑같아요. 비행기 머리를 좌우로 도리도리하게 만들죠. 이것 ‘요(Yaw)’라고 합니다.”

“아... 손으로는 기울이고(Roll), 끄덕이고(Pitch). 발로는 도리도리(Yaw). 생각보다 단순하네요?”

“원리는 단순하죠. 하지만 비행은 이 세 가지를 섞어서 ‘3차원’으로 움직이는 예술이라는 게 문제죠. 자, 이제 이 관절들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준비가 되셨나요?”

[2교시] 여섯 개의 눈 (The Six Pack)

1. 비행기의 오감(五感)

“자, 이제 시선을 계기판으로 돌려봅시다. 정면에 동그란 계기판 6개 보이죠?”

“네. 뭐가 이렇게 많아요?”

“이걸 파일럿들은 ‘식스 팩(Six Pack)’이라고 불러요. 복근처럼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계기들이거든요. 이거 못 읽으면 눈 감고 운전하는 거랑 같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계기판을 노려봤다. 숫자와 눈금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너무 복잡해요. 이것 한눈에 다 봐야 한다고요?”

“화가시니까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계기들은 카야 님의 ‘물감 팔레트’입니다.”

2. 하늘을 담은 액자 (Attitude Indicator)

레이는 정중앙에 있는, 파란색과 갈색이 반반 섞인 계기를 가리켰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세계(Attitude Indicator)’. 인공 수평이라고도 하죠. 파란색은 하늘, 갈색은 땅. 가운데 있는 주황색 날개 모양이 우리 비행기예요.”

“아, 이건 좀 직관적이네요. 비행기가 기울면 저 그림도 기울겠네요?”

“맞아요. 카야 님이 하늘이라는 캔버스에 구도를 잡는 기준점입니다. 파란색이 많아지면? 하늘을 보고 있으니 상승하는 거고, 갈색이 많아지면? 땅으로 곤두박질치는 거죠.”

“오... 구도 잡기라. 이해가 확 되는데요?”

3. 붓의 속도와 높이 (Airspeed & Altimeter)

“그럼 그 왼쪽, ‘속도계(Airspeed)’는 붓의 속도입니다. 붓이 너무 느리면 물감이 뭉치죠(실속)? 반대로 너무 빠르면 붓이 갈라지고요(기체 파손). 세스나는 초록색 테두리 안에서 놀아야 가장 예쁜 선이 나옵니다.”

“초록색 테두리... 오케이.”

“오른쪽에 있는 ‘고도계(Altimeter)’는 붓의 높이죠. 시계랑 읽는 법이 같아요. 긴

바늘은 100피트, 짧은 바늘은 1,000피트.”

레이의 설명을 듣고 다시 계기판을 보니, 어지러웠던 기계 장치들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속도(붓의 속도), 자세(구도), 고도(붓의 높이).

“어때요? 이제 내 비행기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야 저 바늘들이 저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붓과 물감이 준비됐으니, 이제 진짜 선을 그으러 가볼까요?”

[3교시] 시동과 활주 (Start & Taxi)

1. 잠자는 숲속의 공주 깨우기

“자, 이제 우리 비행기의 심장을 뛰게 해 볼까요?”

레이 튜터가 말했다.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조종석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자동차처럼 키만 돌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뭔가 누르고 당길 게 많았다.

“그냥 키 꽂고 돌리면 안 되나요?”

“비행기는 공주님이 아니거든요. 순서대로 깨워줘야 해요. 먼저 오른쪽 빨간 레버, ‘믹스처(Mixture)’를 끝까지 미세요. 연료를 주는 겁니다.”

나는 빨간 레버를 쑥 밀어 넣었다.

“그리고 왼쪽의 ‘마스터 스위치’ 켜시고, 이제 키를 돌리세요. 자동차 시동 걸듯이!”

틱, 틱... 끼릭, 끼릭!

키를 돌리자 프로펠러가 힘겹게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잠시 후.

부르르릉-

경쾌한 폭발음과 함께 기체가 덜컥 흔들렸다. 멈춰 있던 프로펠러가 투명한 원을 그리며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와! 켜졌다! 진동이 장난 아니네요!”

“축하합니다. 이제 비행기가 숨을 쉬기 시작했네요. ”

2. 손이 아니라 발이라고?

“자, 이제 활주로까지 이동해 볼까요? 이것 ‘택싱(Taxiing)’이라고 합니다. 브레이크 풀고, 스로틀을 아주 살짝만 미세요.”

나는 주차 브레이크를 풀고 스로틀을 손가락 한 마디만큼 밀었다. 비행기가 슬금 슬금 앞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오, 움직인다! 이제 핸들(조종간)로 방향을 잡으면 되죠?”

나는 익숙하게 조종간을 왼쪽으로 꺾었다. 하지만 비행기는 내 손짓을 비웃듯 계속 직진만 했다.

“어? 어어? 썸! 핸들이 고장 났나 봐요! 차가 안 돌아가요!”

“하하! 카야 님, 제가 1교시에 뭐라 그랬죠? 비행기 머리 돌리는 건 누구라고요?”

“어... 리더? 발이요?”

“맞아요! 땅 위에서 비행기는 ‘손’이 아니라 ‘발’로 운전하는 겁니다. 조종간은 아무리 돌려봤자 날개만 까딱거릴 뿐이에요. 자, 손은 가만히 두시고 발을 차세요!”

3. 술 취한 오리 (Drunken Duck)

“아니, 무슨 운전을 발로 해요?!”

나는 당황하며 왼쪽 페달을 밟았다. 그러자 비행기가 확 왼쪽으로 꺾였다.

“으악! 너무 확 도는데요?”

놀라서 다시 오른쪽 페달을 밟았다. 이번엔 오른쪽으로 휙 돌아갔다. 내 비행기는 마치 술 취한 오리처럼 유도로 위를 갈지자(之)로 비틀거리며 굴러갔다.

“위위, 진정하세요! 페달을 뺀 채는 게 아니라, 지그시 누르는 겁니다. 발가락 끝으로 피아노 페달 밟듯이 부드럽게!”

“이거... 생각보다 엄청 예민한데요? 손은 놓고 있고 발만 바쁘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익숙해지셔야 해요. 이륙할 때도, 착륙할 때도, 활주로 중앙을 맞추는 건 오직 카야 님의 ‘두 발’뿐이니까요.”

4. 노란 선을 따라가세요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나는 발끝의 감각을 조금씩 익혔다. 너무 세게 밟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살짜살짜 눌러주니 비행기가 조금씩 얹전해졌다.

“좋아요. 이제 바닥에 그려진 ‘노란색 선(Centerline)’이 보이죠?”

“네. 유도로 중앙선이요.”

“그 선이 오른쪽 다리로 지나간다고 상상하고 따라가 보세요.”

“오른쪽 다리요? 가운데가 아니고요?”

“조종석이 왼쪽에 있으니까요. 시선 처리를 그렇게 해야 정확히 중앙을 밟고 가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선 따라 굵기(Tracing) 해보셨죠? 그거랑 똑같아요.”

나는 붓으로 노란 선을 따라 그린다는 생각으로 발을 움직였다. 비틀거리던 오리가 이제야 똑바로 걷기 시작했다.

“잘하네요! 이제 활주로 앞까지 다 왔어요. 드디어 날아오를 시간입니다.”

[4교시] 중력을 거스르는 힘 (Take-off & Climb)

1. 100%의 힘으로

활주로 정중앙에 정렬했다. 3km가 넘는 긴 아스팔트가 내 앞에 뻗어 있었다.

“카야 님, 비행기는 자동차랑 다릅니다. 이륙할 때 ‘살살’이란 없어요.”

레이 튜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중력이라는 거대한 족쇄를 끊으려면 비행기가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해요.”

망설이지 말고 스로틀을 끝까지 짹! 밀어버리세요.”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 검은색 스로틀 레버를 끝까지 밀어 넣었다.

부아아앙-!

엔진이 포효했다. 기체가 덜덜 떨리며 앞으로 튀어 나갔다. 등이 시트로 밀리는 가속감이 느껴졌다.

“속도계 보세요! 바늘이 움직이죠? 이걸 ‘속도가 살았다(Airspeed Alive)’라고 합니다.”

2. 땅을 박차고 (Rotation)

바퀴가 바닥을 긁는 진동이 손끝까지 전해졌다. 속도계 바늘이 40, 50을 지나 55 노트를 가리켰다.

“지금입니다! 조종간을 부드럽게 배꼽 쪽으로 당기세요. 붓으로 캔버스에 곡선을 그리듯이!”

나는 숨을 멈추고 스틱을 당겼다. 그러자 기수가 쑥 하고 들렸다.

덜컹, 덜컹... 스으으.

거친 노면의 진동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마치 누군가 비행기를 손으로 들어 올린 것처럼 부드러운 부유감이 온몸을 감쌌다.

“와... 떴어요! 진짜 날고 있어요!”

“이렇게 뜨는 힘을 ‘양력’이라고 불러요. 땅의 구속에서 벗어난 걸 축하해요.”

3. 하늘을 향한 사다리

비행기는 계속 상승했다. 창밖으로 집들이 장난감처럼 작아지고, 넓은 세상이 한 눈에 들어왔다.

“계속 당기고 계세요. 속도계 67노트 유지! 이게 세스나가 가장 효율적으로 하늘을 오르는 속도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나는 67이라는 숫자에 바늘을 고정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으으... 팔이 좀 아픈데요? 비행기가 자꾸 고개를 숙이려고 해요.”

“당연하죠. 아직 비행기는 속도를 내고 싶어서 앞으로 달려 나가려 하거든요. 과일렀이 고삐를 죄어서 위로 끌고 가야 합니다. 1,000피트까지 꼭 올라갑시다!”

[5교시] 수평 비행과 트림 (Straight & Level, Trim)

1. 비행기와의 힘싸움

고도계의 긴 바늘이 1,000피트(약 300m)를 가리켰다.

“좋아요. 이제 원하는 높이에 왔으니 평평하게 날아봅시다. 기수를 내려서 지평선과 나란히 맞추세요.”

나는 당기고 있던 조종간을 살짝 놓았다. 기수가 내려가며 수평이 맞춰졌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쌘! 이거 손을 못 놓겠어요! 손만 떼면 비행기가 위로 솟구치거나 아래로 꺼지려고 해요!”

나는 조종간을 딱 쥔 채 끄끙거렸다. 조금이라도 힘을 빼면 비행기 자세가 흐트러졌다.

“원래 비행이 이렇게 힘든 건가요? 팔 떨어지겠어요.”

“하하, 그럴 줄 알았어요. 초보 파일럿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죠. 비행기랑 ‘팔 씨름’을 하고 계시네요.”

2. 마법의 바퀴 (Trim Wheel)

“자, 비행기랑 화해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조종간 아래쪽에 세로로 된 검은색 바퀴(Wheel) 보이죠?”

“네. ‘트림(TRIM)’이라고 써진 거요?”

“그게 마법의 바퀴입니다. 지금 조종간을 당기고 있어야 수평이 유지되죠? 그럼 그 바퀴를 아래로(Nose Down) 조금씩 굴러보세요.”

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트림 휠을 아래로 드르륵 굴렸다.

“어? 어라?”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묵직하게 내 손을 밀어내던 조종간의 압력이 점점 사라졌다.

“더, 더 굴리세요. 손에 힘을 완전히 빼도 조종간이 그 자리에 있을 때까지.”

3. 손을 놓아도 날아간다

어느 순간, 조종간에서 손을 떼도 비행기가 자석에 이끌린 듯 반듯하게 날아가기 시작했다.

“대박... 손 놔는데 그냥 가요! 자동조종장치 켜 거예요?”

“아니요. 비행기의 균형을 맞춘 겁니다. 이걸 ‘트림을 잡는다’고 해요.”

나는 얼얼한 손목을 털었다.

“비행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균형(Balance)을 맞춰놓고, 파일럿은 손가락 두 개로 살짝만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야 주변 풍경도 보고, 여유를 즐길 수 있죠.”

창밖을 보니, 그제야 아름다운 구름과 지상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와... 진짜 평화롭네요. 이제야 붓을 쥐는 힘을 뺐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유를 즐기세요. 하지만 너무 즐기진 마세요. 이제 가장 어려운 ‘착륙’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6교시] 마의 구간, 착륙 (Landing & Flare)

1. 활주로를 조준하라 (Aiming Point)

한 바퀴를 돌아 다시 공항이 보였다. 저 멀리 길게 뻗은 회색 활주로가 마치 캔버

스 위에 붙여놓은 마스킹 테이프처럼 작게 보였다.

“자, 이제 내려가 볼까요? 스로틀을 천천히 당겨서 출력을 줄이세요. RPM 1,500!”

나는 스로틀을 당겼다. 엔진 소리가 작아지며 비행기가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 쌤, 땅이 너무 빨리 다가오는데요? 무서워요!”

“ 겁먹지 마세요. 추락하는 게 아니라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활주로 끝에 써진 숫자 보이죠? ‘36’이라고 적힌 곳.”

“네, 보여요.”

“그 숫자가 카야 님 눈높이에서 위로 올라가지도, 아래로 내려가지도 않게 딱 고정하세요. 거기가 우리의 ‘조준점(Aiming Point)’입니다. 미수로 치면 ‘소실점’ 같은 거죠.”

나는 조종간을 미세하게 움직이며 그 숫자를 내 시야의 중심에 붙잡아 두려고 애썼다.

2. 기다림

활주로는 점점 거대해졌다. 300피트, 200피트... 아스팔트의 거친 질감이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워졌다. 본능적으로 조종간을 당겨서 도망가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오아... 닿을 것 같아요! 당겨요? 지금 당겨요?”

“아직! 기다리세요! 활주로는 카야 님을 덮칠 것처럼 커질 때까지 참아야 해요.”

고도 10피트(약 3m). 정말 바닥에 배가 닿을 것 같은 순간.

“지금! 스로틀 다 빼고(Idle), 시선을 활주로 끝으로 옮기세요! 그리고 조종간을 아주 부드럽게... 붓 끝을 살짝 들어 올리듯이 당기세요!”

3. 플레어 (Flare)

나는 숨을 멈추고 스로틀을 끝까지 뺐다. 그리고 조종간을 배 쪽으로 지그시 당겼다.

‘부드럽게... 붓질하듯이...’

기수가 살짝 들리며, 땅으로 꽂히던 비행기가 수평으로 자세를 바꿨다. 바닥에 닿을 듯 말 듯, 공기의 쿠션을 타고 미끄러지는 느낌. 이것이 바로 **‘플레어(Flare)’**였다.

唰——!

갑자기 캉캉 안에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엄마야! 무슨 소리에요? 경보 울리는데요?!”

“좋은 소리에요! ‘실속 경보(Stall Horn)’입니다. 날개가 더 이상 날수 없다고 비명을 지르는 거죠. 착륙할 때는 이 소리를 들어야 해요. 이제 비행기가 날기를 멈추고...”

끼익-

경쾌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엉덩이에 묵직한 진동이 전해졌다.

“축하합니다. 땅에 돌아오셨네요.”

“와... 방금 진짜, 물수제비 뜨는 느낌이었어요.”

“완벽한 비유예요. 착륙은 땅에 ‘박는’ 게 아니라, 땅 위를 ‘날다가’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저절로 내려앉는 겁니다.”

[Chapter 7] 가짜 하늘이 주는 진짜 어지러움

1. 모니터 밖의 세상 (Virtual Reality)

착용만 해도 조종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하는 VR 헤드셋은 내가 조종석에 앉아 있는 듯 착각하게 하는 놀라운 물건이었다. 오늘부터는 VR 적응 훈련이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헤드셋을 머리에 썼다. 렌즈의 초점을 맞추자, 좁은 내 방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넓은 세스나 152의 조종석이 나를 감쌌다.

“와...”

또 한번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건 모니터로 보던 것과는 다른 차원이었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조수석 너머의 날개가 보였고, 위를 올려다보면 선루프 너머로 눈부신 태양 빛이 쏟아졌다. 평면 모니터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계기판의 입체감, 그리고 까마득하게 펼쳐진 활주로 끝의 깊이감이 내 온몸을 자극했다. 나는 진짜 파일럿이 된 것 같았다.

자신만만하게 스톱틀을 밀었다. 기체가 활주로를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기수를 들어 올리자 땅이 밑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생생했다. 나는 다시 심호흡을 하며 조종간을 왼쪽으로 꺾어 선회를 시도했다.

2. 뇌의 반란 (Motion Sickness)

그 순간이었다.

“옥...!”

갑자기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불쾌감이 명치를 강타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방금 전까지 감탄하던 그 생생한 풍경이 끔찍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멀미였다. 그것도 아주 지독한.

나는 급히 헤드셋을 벗어 던지고 책상에 엎드렸다. 세상은 멈춰 있는데 내 머릿속은 팽이처럼 돌고 있었다.

3. 눈과 귀의 거짓말 (Sensory Conflict)

교관이 쓴 문장이 뒤늦게 머릿속을 스쳤다.

‘눈은 날고 있지만 귀는 앉아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야.’

그걸 **‘감각 불일치(Sensory Conflict)’**라고 했던가. 눈은 비행기의 움직임에 따라 “내 몸이 지금 왼쪽으로 기울고 있어!”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내 귀 안쪽의 전정 기관은 폭신한 컴퓨터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무슨 소리아? 나는 꿈쩍도 안 하고 있는데?”라고 반박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의 불쌍한 뇌는 이 모순된 정보를 해결하지 못해 ‘환각 상태’나 ‘독성 물질에 중독된 상태’라고 판단해 버렸고, 그 독을 빼내기 위해 구토 명령을 내린 것이다. 내 몸이 지극히 건강하고 정상이라는 증거라지만 당장 괴로운 건 어쩔 수 없었다.

4. 가짜 바람, 진짜 비행 (The Fan Trick)

“이대론 안 되겠어.”

나는 다시 헤드셋을 쓰기 전, 책상 구석에 있던 탁상용 선풍기를 내 얼굴 정면으로 돌렸다.

윙-

시원한 바람이 이마와 볼을 때렸다. 다시 비행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눈앞에 흔들리는 지평선 대신, 고정된 계기판과 저 멀리 움직이지 않는 산등성이에 시선을 고정했다.

신기했다. 얼굴에 와닿는 바람이 “너는 지금 바람을 맞으며 날고 있어”라고 뇌가 속삭여 주는 것 같았다. 시선을 멀리 두니 어지러움도 한결 가라앉았다.

가짜 하늘이 주는 진짜 고통을 이겨내는 법. 그것은 내 몸을 속이는 ‘바람’과 흔들리지 않는 ‘먼 곳’을 응시하며 비행하는 여유였다.

그렇게 나는 VR 비행 적응 훈련을 마쳤다.

[Chapter 8] 목에 깁스를 한 파일럿

1. 경주마의 비애

“아, 답답해! 활주로가 어디 있는 거야?”

다시 모니터 화면으로 비행 연습을 하던 나는 화김에 증얼거렸다. VR을 쓸 때는 고개만 돌리면 옆이 보였는데, 모니터 비행으로 돌아오니 다시 **‘시야’**가 문제였다. 내 비행기는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 같았다. 활주로가 옆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보려면 키보드 키를 눌러서 봐야 했다.

너무 불편했다. “목에 깁스를 한 것도 아니고, 옆을 못 보니까 비행을 할 수 없네.”

VR은 놀랍지만 매번 쓰고 하자니 눈이 빠질 것 같고(무겁고 피곤하다), 그렇다고 타이탄 PC방에서 보았던 수십만 원짜리 시선 추적 장비(TrackIR)를 사기엔 내 마음(지갑)이 허락지 않았다.

2. 파일럿의 목 (Hat Switch)

그때, 레이 튜터의 목소리가 들렸다.

“카야 님, 시점 카메라 조종 연습은 했나요?”

“네? 시점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모니터 비행의 핵심은 **‘가상의 카메라’**를 잘 다뤄야 하거든요.”

레이 튜터는 티타 님이 빌려준 조종간의 4방향으로 움직이는 고깔모자 모양의 버튼을 가리켰다.

“그게 바로 **‘햇스위치(Hat Switch)’**예요. 파일럿의 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버튼이요?”

“네. 메타파일럿 유튜브 강의 보셨죠? 조종간에는 이미 3가지 카메라 화면 모드가 세팅되어 있어요. 자, 한번 눌러보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햇스위치 버튼을 왼쪽으로 딸깍 밀었다. 그러자 화면이 확- 하고 조종석의 왼쪽 창문으로 돌아갔다.

“자, 1번 조종석 카메라 이해했죠? 조종사 시점이 1번 카메라입니다.”

“네... 조종사의 고개를 햇스위치로 돌리는군요.”

“이번엔 2번 **외부 카메라(External View)**를 알아보까요? 외부 카메라 버튼을 눌러요.”

딸깍.

“그러면, 비행기 밖에서 카야 님이 조종하는 비행기가 보일 거예요. 어때요? 늘 하던 게임처럼 익숙하고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죠?”

“와! 내 비행기가 이렇게 예뻐나? 구름이랑 같이 보니까 진짜 그림 같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번 **목표물 카메라(Target View)**. 공항이나 활주로 또는 카야 님이 보고 싶은 곳을 보여주죠.”

3. 카메라 워킹과 구도 (Camera Walking & Composition)

햇스위치를 이리저리 움직이자, 화면 속 풍경이 자유자재로 춤을 췄다. 앞을 보며 조종하다가도, 엄지손가락만 까딱하면 날개 옆의 풍경이 보이고, 내 비행기의 배면도 볼 수 있었다. 몇 번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질 것 같았다.

“카야 님, 시점 조절은 단순히 구경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레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모니터는 작지만, 카야 님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죠. 그리고 전후좌우, 위아래. 이 **카메라 워킹(Camera Walking)**을 잘 해야 ‘내 비행기가 지금 어디에, 어떤 자세로 떠 있는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구도(Composition)**를 잡으라는 거죠?”

“역시! 일러스트레이터라 이해가 빠르시네요. 비행기 조종은 손으로 하지만, 상황 판단은 이 **‘카메라 앵글’**로 하는 겁니다.”

4. 커피 두 잔의 마법 (Webcam Eye Tracker)

햇스위치로 시점을 훑훑 돌리는 게 익숙해질 무렵, 레이가 또 하나의 꿀팁을 전수해 줬다.

“이제, 엄지로 돌리는 게 익숙해지셨으면, 마법을 하나 더 부러볼까요? 집에 웹캠(Webcam) 있으시죠?”

“네, 줌(Zoom) 화상 채팅할 때 쓰는 거 하나 있어요.”

“그거랑 **‘빔 아이 트래커(Beam Eye Tracker)’**라는 앱이 있으면 더 편하게 비행할 수 있어요. 비싼 장비 필요 없어요. 커피 두 잔 값이면 됩니다.”

레이가 알려준 앱을 설치하고 웹캠을 켰다. 그러자 내 눈동자와 고개의 움직임에 따라 빨간 점들이 내 시선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어? 어어?!”

내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 돌리자, 모니터 속 화면도 부드럽게 오른쪽을 비쳤다. 내가 화면 구석을 쳐다보면, 시점 카메라 화면도 그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와... 이거 완전 신기해요! VR 안 썼는데 VR 같아요!”

“연습할 때는 핫스위치나 웹캠을 사용하고, 체험이나 이벤트 비행을 할 때는 VR로 비행하는 것을 추천해요.”

5. 레디, 액션! (Ready, Action!)

이제 나는 더 이상 답답한 경주마가 아니었다. 핫스위치로 10시 방향의 활주로를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계기판을 훑어보고 가끔은 외부 시점으로 빠져나가 노을에 빛나는 비행기의 ‘인생 샷’을 감상했다.

“레디... 액션!”

나는 혼자 중얼거리며 45도 뱅크(Bank) 턴을 시도했다. 이제부터는 유튜브 강의를 쉽게 따라 할 수 있었다. 내 시선이 가는 곳으로 비행기가 움직였고, 모니터라는 사각 프레임 안에 갇혀 있던 내 비행기와 단조롭던 팔레트의 색이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었다.

나는 파일럿이자, 내 비행 브이로그를 찍는 영화감독이 되었다.

[7교시] 길 잃은 아이와 나침반 (Dead Reckoning)

1.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기

성공적인 이착륙 연습을 마치고, 우리는 다시 고도 3,000피트 상공으로 올라왔다.

“카야 님, 혹시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안 보고 길 찾아갈 수 있어요?”

“네? 절대 못 하죠. 저는 300m 앞 우회전도 헛갈리는 길치라고요.”

“큰일이네요. 세스나 152에는 내비게이션이 없거든요. 오직 창밖 풍경과 지도, 그리고 나침반만 보고 길을 찾아야 합니다.”

“헐... 망망대해 같은 하늘에서 그걸 어떻게 찾아요? 미아 되기 딱 좋은데요.”

“걱정 마세요. 하늘에서 보면 땅은 거대한 ‘지도’ 그 자체거든요. 아래를 한번 보세요.”

2. 세상이라는 거대한 선 (Pilotage)

나는 날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꼬불꼬불한 강줄기와 회색 도로들이 얽혀 있었다.

“일러스트 그리실 때 ‘가이드라인(보조선)’ 잡으시죠? 비행도 똑같아요. 저기 길게 뻗은 고속도로 보이죠? 저게 우리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아, 고속도로 같은 건가요?”

“맞아요. 우리는 저 도로를 따라서 쪽 날아갈 겁니다. 도로가 오른쪽으로 휘어지면 우리도 휘어지고, 강이 나오면 강을 따라가고. 이걸 ‘시계 비행(Pilotage)’이라고 해요.”

나는 조종간을 꺾어 고속도로 바로 위를 날았다. 장난감 같은 자동차들이 줄지어 달리는 모습이 보였다.

“와... 밑에 차들은 딱 막혀 있는데 저는 뺨 뚫려 있네요. 기분 최고인데요?”

3. 시간과 속도의 계산 (Dead Reckoning)

“풍경만 보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시계(Stopwatch)를 누르세요.”

“시계는 왜요?”

“우리가 시속 100노트로 날고 있죠? 그럼 10분 뒤엔 어디쯤 있을까요? 지도상에서 차를 대고 거리를 계산해서, ‘10분 뒤에 저 산이 나와야 한다’고 예측하는 겁니다. 이걸 ‘추측 항법(Dead Reckoning)’이라고 해요.”

“으... 수학 시간이네요. 갑자기 머리 아파요.”

“비행은 낭만적인 풍경화 같지만, 사실은 치밀한 수학적 계산이 깔린 ‘설계도’거든요. 10분 뒤에 저 산이 안 나오면?”

“안 나오면요?”

“바람에 떠밀려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때부터는 진짜 미아가 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8교시] 하늘의 보이지 않는 도로 (Traffic Pattern)

1. 직사각형 그리기

“카야 님, 공항에 돌아왔다고 해서 바로 활주로로 직진해서 쫓으면 될까요?”

“음... 차가 없으면 되지 않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하늘에도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룰이 있어요. 공항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약속된 길이 있는데, 이걸 ‘장주(Traffic Pattern)’라고 합니다.”

레이가 화면에 거대한 직사각형을 그렸다. 활주로를 감싸고 있는 투명한 트랙 같았다.

“우리는 활주로와 나란히 비행하다가(Downwind), 90도로 꺾고(Base), 다시 90도로 꺾어서(Final) 들어갈 겁니다. 하늘에 거대한 직사각형을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2. 다운윈드 (Downwind Leg)

우리는 활주로 옆을 평행하게 날았다. 창밖으로 활주로는 내 진행 방향과 반대쪽으로 속 지나가는 게 보였다.

“자, 지금 활주로랑 나란히 날고 있죠? 바람을 등지고 간다고 해서 ‘다운윈드(Downwind)’ 구간입니다. 여기서 착륙 준비를 다 마쳐야 해요.”

“착륙 준비요?”

“네. 속도 줄이고, 플랩 1단계 내리고, 관제탑에 ‘나 착륙할 거야’라고 보고하고. 정신없죠?”

나는 허둥지둥 플랩 레버를 내리고 계기판을 확인했다.

“활주로는 점점 뒤로 멀어지는데요? 언제 꺾어요?”

“활주로 끝이 카야 님의 어깨 뒤 45도 각도에 보일 때! 그때가 터닝 포인트입니다.”

3. 베이스와 파이널 (Base & Final)

“지금입니다! 왼쪽으로 90도 턴! 이걸 ‘베이스(Base)’ 구간이라고 해요.”

나는 조종간을 꺾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수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입니다. 다시 왼쪽으로 90도! 여기가 바로 ‘파이널(Final)’입니다.”

두 번의 턴을 마치자, 거짓말처럼 활주로는 정면 12시 방향에 딱 나타났다.

“와... 신기해요. 그냥 감으로 도는 게 아니라, 정해진 지점에서 도니까 딱 맞춰지네요.”

“그렇죠. 장주 비행은 하늘에 보이지 않는 레일을 깔아두는 것과 같아요. 이 시각형만 잘 그리면 전 세계 어느 공항이든 안전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9교시] 구름 속의 산책 (Instrument Flying Basics)

1. 하얀 감옥 (Whiteout)

“자, 이제 카야 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초대합니다. 날씨 설정을 좀 바꿀게요.”

레이가 메뉴를 조작하자,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두꺼운 구름 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헉... 아무것도 안 보여요! 창문이 온통 회색이에요!”

창밖은 위도 아래도 구분할 수 없는 하얀색 페인트통 같았다. 땅도, 하늘도, 지평선도 사라졌다.

“이게 바로 ‘계기 비행(IFR)’ 상황입니다. 이제 카야 님의 눈은 창밖이 아니라, 오직 계기판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2. 몸이 보내는 가짜 신호 (Vertigo)

“자, 수평 비행 유지하세요. 지금 비행기 똑바로 날고 있나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느낌상으로는 평평해요.”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하지만 레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정말요? ‘자세계(Attitude Indicator)’를 다시 보세요.”

계기판을 본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인공 수평의 속의 비행기는 오른쪽으로 30도나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고도는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어?! 왜 이래요? 제 엉덩이는 분명히 똑바로 앉아 있는 느낌인데?”

“그게 바로 ‘비행 착각(Vertigo)’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평선이 사라지면, 우리 뇌와 귀(전정기관)는 엉터리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몸은 똑바르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추락하고 있는 거죠.”

3. 기계를 믿어라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내 몸의 감각이 나를 속이고 있다니.

“카야 님. 지금부터는 카야 님의 감각을 버리세요. 몸이 ‘왼쪽으로 돈다’고 비명을 질러도, 계기판이 ‘수평’이라고 하면 수평인 겁니다.”

“와... 이거 진짜 공포영화 같아요. 내 몸을 못 믿는다니.”

“눈을 계기판에 고정하세요. 자세계(자세), 고도계(높이), 속도계(속도). 이 세 가지만 계속 뽕뽕이 돌면서 확인하세요. 그걸 ‘스캔(Scan)’이라고 합니다.”

나는 주문을 외우듯 계기판을 노려봤다. *자세 잡고, 고도 확인, 속도 확인... 자세 잡고...*

“잘하고 있어요. 구름 속에서 믿을 건 오직 기계뿐입니다.”

[10교시] 초록색 바늘을 쫓아서 (VOR Navigation)

1. 보이지 않는 등대

“자, 구름 속에 갇혀서 밖이 안 보이는데 길은 어떻게 찾을까요? 도로나 강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게요. 나침반만 보고 가나요?”

“나침반은 방향만 알려주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지는 안 알려주죠. 그래서 땅 위에 ‘전파 등대’를 세워줬습니다. 그걸 ‘VOR’이라고 해요.”

레이는 계기판 오른쪽에 있는, 마치 나침반처럼 생겼지만 가운데에 **‘초록색 막대기(Needle)**’가 꽂힌 계기를 가리켰다.

“주파수를 맞추면, 저 등대에서 레이저 빔 같은 전파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빔을 타고 가는 거예요.”

2. 바늘을 따라가세요

“지금 초록색 바늘이 어디 가 있죠?”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건 ‘내가 가야 할 길이 네 오른쪽 편에 있다’는 뜻입니다. 바늘이 간 쪽으로 비행기를 돌리세요.”

나는 조종간을 오른쪽으로 꺾었다. 그러자 오른쪽 구석에 있던 바늘이 서서히 가운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 바늘이 가운데로 와요!”

“스톱! 바늘이 정중앙에 오면, 비행기를 다시 수평으로!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파의 길 위에 올라탄 겁니다.”

3. 구름 위의 미로 찾기

“이거 완전 게임 인터페이스(UI) 같네요. 바늘만 맞추면 길을 잃을 일이 없겠어요.”

“맞아요. 옛날 파일럿들은 이 바늘 하나에 의지해서 태평양을 건너고 밤하늘을 날았죠. 밖이 아무리 캄캄해도, 이 초록색 바늘만 가운데에 묶어두면 반드시 목적지 공항이 나타납니다.”

창밖은 여전히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회색 구름 속이었지만, 계기판 속의 초록색 바늘은 곳곳하게 서서 나에게 길을 안내하고 있었다.

“어때요? 이제 보이지 않는 세상도 그럴 수 있겠죠?”

[11교시] 신의 붓터치, ILS (Instrument Landing System)

1. 십자가를 따라서

“자, 이제 훈련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VOR로 공항 근처까지 왔지만, 구름이 땅바닥까지 깔려있어서 활주로가 안 보여요. 어떻게 착륙할까요?”

“기도를 해야 하나요? 제발 활주로가 나오게 해달라고?”

“비슷해요.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믿고 내려갈 거거든요.”

레이는 VOR 계기판을 가리켰다. 아까는 초록색 세로 바늘 하나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로 바늘이 하나 더 생겨서 ‘십자(+)’ 모양을 하고 있었다.

“이게 바로 ‘ILS(계기 착륙 장치)’입니다. 세로 바늘(Localizer)은 좌우 방향, 가로 바늘(Glideslope)은 위아래 높이를 알려줍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저 두 바늘이 딱 십자 모양으로 겹치게 만들면 된다는 거죠?”

“맞아요. 활주로가 쏘아 보내는 ‘유도 전파’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튜브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는 것과 같아요.”

2. 바늘을 쫓지 마라

“자, 가로 바늘이 위로 올라가 있네요. 무슨 뜻일까요?”

“음... 미끄럼틀이 내 머리 위에 있다?”

“정답! 카야 님이 너무 낮게 날고 있다는 뜻입니다. 침착하게 기수를 살짝만 드세요. 바늘이 내려올 때까지.”

나는 조종간을 당겼다. 그러자 가로 바늘이 천천히 중앙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이번엔 세로 바늘이 왼쪽으로 도망갔다.

“으악! 왼쪽으로 가네! 잡아야지!”

나는 급하게 왼쪽으로 핸들을 꺾었다. 그러자 바늘이 확 오른쪽으로 튀어 버렸다.

“워워! 진정하세요! 바늘을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Don't chase the needle)! 바늘은 아주 예민해요. 조종간을 정말 1mm씩만 움직여서 ‘기다려야’ 해요.”

“아, 너무 어려워요! 십자가가 자꾸 찢어져요!”

“호흡 조절하세요. 바람을 느끼고, 아주 미세하게... 붓끝을 떨지 마세요.”

3. 미니멈 (Minimums)

식은땀이 흘렀다. 창밖은 여전히 회색 구름뿐인데, 고도계는 1,000피트, 800피트... 무섭게 내려가고 있었다.

“계속 집중하세요. 바늘 중앙 유지. 속도 65노트. 우리는 지금 땅으로 돌진하는 게 아닙니다. 활주로가 우릴 부르는 길로 가는 거예요.”

고도 500피트.

“거의 다 왔습니다. 계기판만 보세요. 밖을 보면 현기증 납니다.”

고도 200피트(약 60m). 아파트 20층 높이까지 내려왔는데도 땅이 안 보였다.

“자, ‘결심 고도(Minimums)’입니다! 이제 고개를 들어 밖을 보세요!”

4. 안개 속의 빛

나는 계기판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봤다. 짙은 안개가 걷히는가 싶더니, 눈앞에 거짓말 같은 풍경이 나타났다.

“어? 어어?!”

회색 도화지가 찢어지듯 구름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활주로 유도등(Runway Lights)’**의 영롱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활주로는 내 비행기 정면에 완벽하게 정렬되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활주로 확인(Runway in Sight)! ”

“와... 대박... 진짜 딱 앞에 있어요! 마법 같아요!”

“이 전을 때문에 파일럿들이 계기 비행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 속을 뚫고 나왔을 때, 활주로 불빛이 나를 반겨주는 그 순간.”

끼익-

비행기는 안개 젖은 활주로에 부드럽게 안착했다.

“축하합니다, 카야 님. 이제 당신은 맑은 날이든 흐린 날이든, 언제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진짜 파일럿이 되었습니다.”

(Season 1. 메타파일럿 아카데미 : 세스나 152 훈련 과정 完)

[Chapter 9] 단추 하나로 거인을 깨우다

1. 시동 걸다 날 밤새졌네 (Complex Procedures)

노트북 모니터 속의 세스나 152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기초 과정은 모두 연습했고 이제, 실기 평가를 위해 훈련만 남았다. 그중 세스나 152의 시동 절차가 있었다.

Master Switch ON, Fuel Valve ON, Mixture Rich, Throttle 1/4...

“하... 이걸 언제 다 하고 있어?”

어제 늦게까지 일러스트 마무리하느라 피곤했다. 비행기 띄우기도 전에 공부하다 잠들 판이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디스코드 채널에 접속했다.

“레이 쌤, 이쯤에서 포기할까요? 시동 거는 순서 외우다가 머리 터질 것 같아요.”

내 푸념을 들은 레이가 ‘푸하하’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카야 님! 왜 사서 고생을 하세요? 그건 실제 비행 학교 학생들이 외우는 거고요.”

“네? 하지만 실기 평가는 시동을 걸어야 날 거 아니에요.”

2. 마법의 버튼 (Auto Start)

“우리가 누릅니까? **‘메타파일럿’**이잖아요. 시뮬레이션의 특권이 뭐니까? 귀찮은 건 생략하고 쉽고, 재밌고, 유익한 것만 쪽 빼먹을 수 있다는 거죠!”

레이의 목소리에 장난기가 가득 묻어났다.

“카야 님, 지금 티타 님이 빌려준 조종간 잡고 계시죠? 거기에 사각 스위치 버튼 보이죠?”

“네, 보여요. 전원 버튼처럼 생겼는데...”

“그게 바로 **‘마법의 버튼’**이에요. 복잡한 절차 다 무시하고, 엔진을 한 방에 깨우는 ‘자동 시동(Auto Start)’ 기능을 그 버튼에 심어놨거든요.”

“정말요? 믹스처니 스로틀이니 안 만져도 돼요?”

“네. 그런 건 저처럼 튜터 자격 과정 때 하는 거고. 왕초보는 일단 프로펠러가 돌아야 신이 나죠. 자, 고민하지 말고 꼭 누르세요!”

3. 3초 만에 깨어난 거인 (Engine Start)

나는 반신반의하며 조종간의 사각 버튼을 꼭 눌렀다. 그러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다. 꺼져 있던 계기판 스위치들이 알아서 *탁탁탁* 켜지더니, 믹스처 레버가 쑥 들어가고, 시동 키가 저절로 *끼릭* 돌아갔다.

부르르릉-! 쿵!

단 3초 만에 엔진이 거친 숨을 토해내는 소리가 들렸다. 멈춰 있던 프로펠러가 힘차게 돌아가며 시야가 잠깐, 반투명하게 바뀌었다. 엔진의 진동으로 계기판이 흔들리는 것도 보였다.

“오... 되네! 이렇게 쉬운 걸 꿈꿨대고 있었다니!”

4.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 (RPM & Oil Pressure)

프로펠러가 안정적으로 돌기 시작하자 레이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시동은 이렇게 편법으로 걸어도 돼요. 하지만 딱 두 가지는 꼭 확인해야 해요. 이걸 생존이랑 직결된 거니까.”

레이는 내 시선을 계기판의 특정 부분으로 유도했다.

“첫째, 저쪽의 RPM 계기의 바늘을 보세요. 너무 낮으면 엔진이 꺼지고, 너무 높으면 튀어나가요. 1,000 정도에 안정적으로 머무는지 확인하세요.”

“네, 1,000 RPM 확인.”

“둘째, 여기 보이는 오일 압력(Oil Press) 계기. 녹색 범위 안에 바늘이 들어와야 해요. 비행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계기가 비정상이면 하늘에서 엔진이 멈출 거예요. 이 정도 습관은 들여놓는 게 좋아요.”

“오일 압력, 녹색. 정상이에요!”

“완벽해요! 복잡한 건 컴퓨터한테 맡기고, 카야 님은 비행기의 **‘건강 상태’**만 딱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5. 메타파일럿의 특권 (Privilege)

나는 돌아가는 프로펠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복잡한 기계 조작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처음 마음먹었던 비행의 설렘이 다시 시작했다. 눈앞에서 춤추는 프로펠러는 마치 나에게 “하늘로 가자”고 손짓하는 것 같았다.

“쌤, 이제 진짜 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엔진 깨웠으면 끝난 거죠. 자, 이제 활주로로 나가서 진짜 자유를 맛볼 차례입니다.”

나는 스톱 레버에 손을 얹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비행기가, 버튼 하나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니 친근해졌다.

메타파일럿? 아주 마음에 든다.

[Chapter 10] 보라보라섬의 실기비행

1. D-Day: 접속

“후우...”

나는 VR 헤드셋을 쓴 채 심호흡을 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조종간이 미끄러울까 봐 파자마에 습습 문질렀다. 오늘은 드디어 기초 과정 수료 실기 평가가 있는 날이다.

디스코드 알림이 울렸다.

[공지] 실기 평가 10분 전입니다. 훈련생 전원 보라보라섬(Bora Bora) 채널로 접속하세요.

이번 평가에 참여하는 훈련생은 나를 포함해 총 4명. 교관은 무작위로 호출 부호(Call sign)를 부여했다.

“카야 훈련생, 위치는 **‘3번기(Flight 3)’**다. 앞뒤 간격 유지에 신경 쓰세요.”

내 위치는 3번. 선두도 아니지만, 맘 편한 꼴찌도 아니다. 샌드위치처럼 낀 위치라 더 긴장됐다.

2. 10초의 간격

시뮬레이션 로딩이 끝나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숨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다. 에메랄드빛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보라보라섬 공항. 하지만 감상할 여유는 없었다.

내 왼쪽으로 똑같은 세스나 152 두 대가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며 대기 중이었고, 내 오른쪽에도 한 대가 있었다. 우리는 활주로 진입로에 나란히 섰다.

“좋습니다. 오늘의 실기 평가 미션은 ‘장주 비행(Traffic Pattern)’ 및 **‘편대 순환’**이다. 10초 간격으로 이륙한다. 1번기부터 라인업.”

엔진 소리가 활주로를 채웠다. 1번기가 스로틀을 밀며 활주로를 박차고 나갔다. 나는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션다. 하나, 둘... 여덟, 아홉, 열!

2번기가 출발하고, 다시 10초 뒤. 내 차례다.

“3번기, 롤링(Rolling).”

스로틀을 끝까지 밀자 등이 시트에 과묵히는 느낌(물론 기분 탓이지만)이 들었다. 속도계가 55노트를 지나자 조종간을 당겼다.

부웅-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의 부유감. VR 시뮬레이션이 주는 놀라운 선물이다. 앞서가는 2번기가 작게 보인다. 너무 가까워져서도, 멀어져서도 안 된다. 나는 레이 튜터에게 배웠던 대로 계기판과 창밖을 번갈아 보며 간격을 맞췄다.

3. 하늘 위의 보고 (Reporting)

“3번기, 크로스윈드(Crosswind, 측풍 구간) 진입.” “3번기, 다운윈드(Downwind, 배풍 구간) 진입.”

구간마다 위치를 보고하며 활주로와 평행하게 비행했다. 아래로 보이는 보라보라의 바다는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내 신경은 온통 앞 비행기의 꼬리에 쏠려 있었다.

활주로 끝지점에 다다랐을 때, 교관의 지시가 떨어졌다.

“1번기, 터치 앤 고(Touch and Go) & 체크 턴(Check Turn). 후미로 이동하라.”

가장 먼저 착륙한 1번기가 바퀴를 땅에 뒹기듯 닿았다가 다시 이륙했다. 그리고는 오른쪽으로 크게 선회하며 대열의 맨 뒤, 즉 4번기 뒤로 빠졌다.

이제 선두는 2번기다. 그다음은... 나다.

4. 리더가 되는 순간 (To be a Leader)

2번기가 뒤로 빠지고, 내 앞에 아무것도 없는 뱅 뚫린 하늘이 나타났다. 이제 내가 1번기, 즉 **선두(Leader)**다.

갑자기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다. 내가 속도를 못 맞추면 뒤따라오는 4번기, 1번기, 2번기가 줄줄이 꼬인다.

“카야, 쫓지 마. 그냥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야. 하늘에 선을 긋는 거라고.” 나는 중얼거렸다. 침착하게 활주로를 향해 기수를 돌렸다. 파이널(Final) 구간. 활주로는 점점 커진다. 센터라인을 두 다리 사이에 끼우는 느낌으로.

끼익-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부드러운 착륙.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다시 플랩을 올리며 스포트를 밀었다. 다시 이륙.

“3번기, 나이스 터치. 우선회하여 후미로 붙어라.”

씨겔 교관의 짧은 칭찬(아니, 지적하지 않았으니 칭찬이다)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5. Full Stop

조종에 집중하느라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른다. 4번기가 선두가 되었을 때, 마지막 명령이 떨어졌다.

“전 기체, 풀 스탑(Full Stop, 완전 착륙).”

하나둘씩 활주로에 내려앉은 비행기들이 줄지어 보라보라 주기장(Parking ramp)으로 들어왔다. 엔진을 끄고 프로펠러가 멈추자, 디스코드 채널에 안도의 한숨들이 터져 나왔다.

“와... 진짜 손 떨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2번기 넘 아까 바람 불 때 흔들리는 거 보고 저도 식겁했다니까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함께 하늘을 날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묘한 전우애가 생겨났다.

“수고했습니다. 각자 녹화한 비행 영상은 ‘리플레이 파일’과 함께 저장해서 제출하도록. 최종 평가는 영상과 로그를 분석해서 메일로 발송합니다. 이상 해산.”

6. V-LOG: 나의 첫 비행 일지

평가는 끝났지만, 나의 작업은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제출용 영상 외에, 내가 비행하며 본 풍경과 우리 편대의 움직임을 편집 프로그램에 올렸다.

일러스트레이터의 감각을 발휘할 시간. 엔진 소리에 맞춰 배경음악을 깔고, 긴박했던 무전 소리를 자막으로 입혔다. 보라보라섬의 석양을 배경으로 4대의 비행기가 줄지어 나는 장면은 그야말로 영화의 한 장면이었다.

[영상 제목: 일러스트 파일럿, 태평양을 날다 (메타파일럿 3기 수료 비행)]

영상을 ‘메타파일럿 커뮤니티’에 올리자마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와, 이게 게임이라고요? 진짜 비행인 줄...”

“저 3번기 착륙 진짜 부드럽네요.”

“저도 교육 신청하러 갑니다.”

7. 일러스트 파일럿 (The Beginning)

나는 수료증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더 이상 방구석의 기계치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나는 일러스트 파일럿이다.

[Chapter 11] “합격입니다, 카야 파일럿”

1. 물수제비 뜨듯이 (Flare)

나는 핫스위치로 활주로 위치를 확인하며 마지막 착륙 절차(Final Approach)를 준비했다. 활주로는 점점 커지며 나에게 다가왔다.

‘속도 좋고, 진입 각도 좋고... 침착해. 레이 쌤이 말한 대로 붓질하듯이...’

활주로 바닥이 코앞까지 다가온 순간.

‘지금이야, 플레어(Flare)!’

나는 호흡을 멈추고 조종간을 부드럽게 당겼다. 기수가 살짝 들리며 비행기가 공기의 쿠션을 탔다. 마치 잔잔한 수면 위를 스치는 물수제비처럼, 비행기는 충격 없이 부드럽게 활주로 위를 미끄러졌다.

끼익-

경쾌한 타이어 마찰음. 완벽한 착륙이었다.

2. 일러스트 파일럿의 탄생

“3번 훈련생, 훌륭한 착륙이었다. 축하한다.”

씨겔 교관의 무뚝뚝하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 그리고 잠시 후, 내 메일함으로 알림이 도착했다.

[메타파일럿 아카데미: 기초 과정 수료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훈련생들의 환호 소리가 헤드셋 너머로 아득히 들렸다. 나는 나도 모르게 쓰고 있던 VR 헤드셋을 벗어 던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만세를 불렀다.

“해냈다! 내가 해냈어!”

6평짜리 좁은 방구석. 회색빛이었던 나의 공간은 어느새 성취감이라는 다채로운 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기계치 일러스트레이터의 무모한 도전, 나의 비행은 드디어 하늘의 인정을 받았다.

[에필로그] 회색 벽에 걸린 파란 하늘, 그리고...

1. 크리에이터 파일럿 카야

며칠 뒤, 내 자취방 풍경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여전히 좁은 방이고, 책상 위엔 마감해야 할 일러스트들이 쌓여 있었지만, 모니터 위쪽 벽면에는 새로운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수료증 / CERTIFICATE OF COMPLETION]

- 과정: 메타파일럿 기초 비행 (Cessna 152)

- 성명: 카야 (Kaya)
- 위 사람은 소정의 비행 훈련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였으므로...

나는 믹스 커피를 마시며 뿌듯하게 액자를 바라봤다. 기계치에, 일러스트 외면자였던 내가 불가능한 무언가를 끝까지 해냈다. 저 수료증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다. 내 인생의 ****채도(Saturation)****를 높여준 ‘자격 증명’이었다.

2. 새로운 택배 상자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요!”

“어? 시킨 거 없는데?”

문을 열어보니 티타 님이 보낸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겉면에는 ****[Season 2. 준비물]****이라고 투박하게 적혀 있었다. 불길한 예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다. 상자를 열자, 세스나 훈련 매뉴얼과는 전혀 다른, 거친 느낌의 표지와 새로운 조종간 모듈(손잡이)이 투박한 러더 페달과 함께 들어 있었다. 책 표지에는 평음을 내며 불을 뿜는 프로펠러 전투기가 그려져 있었다.

<전장이 당신을 초대합니다>

3. 평화는 끝났다

책 사이에 끼워진 쪽지에는 레이 썸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카야 님! 기초 떼느라 고생했구요. 이제 평화로운 유람 비행은 끝입니다.” “시즌 2는 제2차 세계대전이에요. 비행만 잘해선 안 돼요. 적의 꼬리를 쫓아 격추해야 살아 남습니다. 하하.” “준비되셨죠?”

우리가 조종할 다음 비행기는 **BF-109 G2**입니다.”

나는 액자 속의 ‘평화로운 수료증’을 한번 보고, 상자 속의 ‘살벌한 전투기’ 그림을 번갈아 보았다. 이제 겨우, 세스나로 하늘을 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세계 유적지의 하늘을 여행하려고 했는데... 역사 속의 전장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필 나를?”

내 입가에 비장한 미소가 번졌다. 나는 티타 님이 보내준 전투기용 조종간 모듈을 꺼내, 내 스틱에 끼워 맞췄다.

찰칵-

장전 소리처럼 묵직한 결합음이 방 안에 울렸다. 그리고 러더 페달에 발을 올려 움직여 보았다.

“좋아. 이번엔 격추왕이 돼서 천만 유튜버에 도전해 볼까?”

나는 다시 VR 헤드셋을 썼다. 이번엔 파란 하늘이 아니다. 대공포가 빗발치는 전장의 잿빛 하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Season 1 [가이드편] 완결(完).